

10년 전을 사랑하자

이상용 | 영화평론가

요즘 책이 팔리는 풍경을 보면 미디어의 시대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가 하면,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이지만 《반지의 제왕》은 영화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부수를 자랑할 수 있었다. 《뷰티풀 마인드》 같은 전기물도 영화 덕에 두꺼운 페이지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미디어의 유행 논리다. 책을 뒤져본 이들은 알겠지만 대형서점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10년 전의 책을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10년 전 책을 구하려고든 차라리 유명한 헌책방이 빠르다. 최근 영국의 철학자이자 유명한 여류 소설가인 아이리스 머독의 생애를 다룬 〈아이리스〉가 개봉돼 그녀에 관한 책들을 뒤져봤다. 세계문학 전집류에서 〈잘려진 머리〉〈종〉을 읽은 적은 있지만 단행본으로 출간된 《철학자의 제자》를 구할 길 없어 신촌에 있는 헌책방 '숨어있는책'을 찾았다. 1994년에 번역된 《철학자의 제자》는 소설류 중간에 숨어 있었다. 운이 좋은 경우기도 하지만 과거의 유명한 소설들은 헌책방에서 살아 있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의 생리는 '지금'에서 한 걸음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쏟아져나오는 책들을 감당하

기도 힘든데 과거의 모범들을 돌아볼 여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출판 시장에서 이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가끔 헌책방에 들러서 과거 〈박영문고〉판으로 나온 니체의 번역서들을 구해본다. 최근 책세상에서 나오는 《니체 전집》을 구해보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어떤 번역서의 경우는 일본어판을 중역한 박영문고가 더 명확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문고판은 출판사의 사정과 일본어 중역판이라는 이미지와 문고판의 시장 논리에 따라 사장되고 말았다. 아마 일부 북마니아들에 의해 이 시리즈는 명맥을 유지하게 될 텐데, 그 운명의 부대낌은 10년 이상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속도가 원인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문화는 '십년지대계'도 안된다. 책뿐만이 아니다. 쏟아지는 비디오를 수용하지 못해 비디오 매장에서는 과거의 고전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음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계천에서 10년 전에 유행한 LP를 구할 수는 있지만 좋은 상태의 음반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헌책방, 헌비디오, 헌레코드 문화가 사라지는 않겠지만, 이곳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문화의 척박함은 더욱 깊어갈 뿐이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신문의 그 술한 복리부지면 한 귀퉁이에 10년 전 유물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최근 한 출판사에서 구간 복간본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10년 전 우리를 매혹했던 문화가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 자못 궁금하다.

10년 전 나를 매혹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은 절판된, 청담사에서 나온 이탈리아의 시인 체사레 파베세가 쓴 《피곤한 노동》이라는 빨간 표지의 시집이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시가 눈에 걸린다. "태양과 비는 잠초들만 보살필 뿐, / 서리맞은 곡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문화를 돌보는 것은 태양과 비만으로는 안될 일이다.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차가운 서리로부터 문화를 유지시킬 문화도 우리에게겐 필요하다. 아니, 절실하다. ■

통권 제319호 | 2002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선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